

혈액투석실 간호사의 실무적응과정에 대한 근거이론적 접근*

박 의 정¹ · 김 영 혜²

¹ 춘해보건대학교, ² 부산대학교 간호대학

* 이 논문은 부산대학교 자유과제 학술연구비(2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This work was supported by a 2-year Research Grant from Pusan National University.

A Grounded Theory-Based Approach to Practice Adaptation Process of Hemodialysis Unit Nurses*

Park, Eui Jung¹ · Kim, Young Hae²

¹ Department of Nursing, Choonhae College

² College of Nursing, Pusan University

주요어

혈액투석실, 간호사, 실무, 적응, 질적연구

Key words

Hemodialysis unit, Nurse, Practice, Adaptation, Qualitative research

Correspondence

Kim, Young Hae
College of Nursing, Pusan University
49 Busandaehak-ro,
Mulgeum-eup, Yangsan-si,
Gyeongsangnam-do, 626-870,
Korea
Tel: 82-51-510-8301
Fax: 82-51-510-8303
E-mail: ungaekim@pusan.ac.kr

투 고 일: 2012년 11월 19일
수 정 일: 2012년 12월 28일
심사완료일: 2013년 1월 12일

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generate a grounded substantive theory for the practice adaptation process of hemodialysis unit nurses. **Methods:** Participants in this study were 10 nurses working in one of two hemodialysis units. Data were collected through tape recorded in-depth interviews done between December, 2011 and February, 2012. Data were analyzed using grounded theory methodology. **Results:** From the participants' statements, 43 concepts, 18 subcategories and 10 categories were extracted through the open coding process. The 10 categories were: "Burden", "Role conflict", "Fearful", "Conflict of emotion", "Lack systematic job training", "Lack support system", "Compassion", "Rapport created", "Sense of duty", and "Growth." The core category was discovered to be 'recognized growth'. Phenomenon was identified as 'burnout' and this series of processes was categorized as having three stages: 'conflict', 'acceptance', 'growth'.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provide useful information about the needs of Hemodialysis Unit Nurses during the practice adaptation process based on their stages and types of practice adaptation. Finally, this study contributes data for the development of intervention programs that support the Hemodialysis Unit Nurses' practice adaptation.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혈액투석은 전체 신대체요법 중 67%를 차지하여 가장 많이 선택되고 있는 방법이며, 2010년 현재 혈액투석 환자는 39,509명

(백만명당 768.1명)에 이르고 있다(Korean Society of Nephrology, 2011). 혈액투석을 받는 환자의 증가와 함께 혈액투석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수도 2000년 말 304개소에서 2010년 말 637개소로 증가하였으며, 혈액투석실에 근무하는 간호사 수는 현재 3,000여명에 이르고 있다(Korean Nephrology Nurses' Association, 2011).

혈액투석실은 노동집약적이고 기술집약적인 의료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간호단위로서 투석간호업무 수행할 때 타 분야와의 상호작용이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에 간호사간의 팀워크나 환자 및 가족과의 상호작용이 많이 요구되는 부서라 할 수 있으며 (Park, 2005),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투석기계 및 보조 장비 시설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기술적인 숙련, 투석간호와 관련된 지식 및 간호수기술에 대해 고도로 훈련된 간호인력이 확보되어야 한다.

혈액투석을 받는 환자들은 대부분의 경우 매회 4~5시간씩 주 2~3회 반복적인 투석치료를 받아야 함으로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 부담을 느끼게 되고, 장기간 밀접한 접촉을 하게 되는 간호사들에게 특히 의존적이다(Park, 2005). 따라서 혈액투석실 간호사들은 기계와 의료진에게 의존하며 현실 적응의 어려움을 비롯한 사회심리적인 문제를 가진 환자들과 끊임없는 관계를 맺게 되고(Kimmel, 2001), 환자상태의 불안정성 및 돌발적인 위기 상황으로 인해 과민해 질 수 있으며(Rheu & Kim, 2005), 타부서보다 많은 책임감과 독립심을 요구받게 된다(Na, 2005).

이러한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혈액투석실 간호사는 대부분 본인의 의사보다 조직의 인사 발령에 의해 배치되며, 투석간호사로 실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직무 불만족, 소진 등의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경험은 부정적인 자아개념 및 직업적 태도를 갖게 하여 간호사 개인의 손실뿐만 아니라 환자 간호의 질도 저하시키게 된다(Chun, 2005).

혈액투석실 간호사의 긍정적인 실무 적응의 결과는 높은 직무만족도와 수준 높은 질적 간호 수행, 간호사 역할갈등의 감소를 기대할 수 있다(Na, 2005). 긍정적인 실무 적응은 간호사 개인의 노력에도 책임이 있지만 조직 구성원과 병원체제의 협조와 지지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Park, Kim, Kang, Lee, & Park, 2011), 혈액투석실 간호사가 특수한 환경과 자신의 역할에 적응하는 시기에 그들이 경험하고 느끼는 것을 심층적으로 살펴보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최근 혈액투석실 간호사에 대한 연구는 혈액투석실 간호사의 경력단계별 행동지표 개발과 실무교육 요구도(Chun, 2005), 혈액투석실 간호사의 역할갈등과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Na, 2005), 혈액투석실의 조직특성, 간호조직 문화 유형 및 조직 성과에 관한 연구(Park, 2005), 혈액투석 환자간호 웹기반 교육 프로그램 개발(Chun, 2010)등의 혈액투석실 특수성에 기반을 둔 양적 연구가 이루어 졌으며, 질적 연구로는 혈액투석실 간호사의 윤리적 딜레마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Kim, 2005)가 있었다. 일반적인 간호업무와 구별되는 혈액투석실의 특수한 환경에 성공적으로 적응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는 혈액투석실 간호사가 경험하는 실무의 배경과 적응 과정에 관한 이해가 요구되며 이를 바탕으로 혈액투석실 간호사에게 적

합한 실무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것과 특수한 실무 적응의 어려움을 중재하는 지지체계기반의 확립이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혈액투석실 간호사들이 실무적응과 관련하여 겪은 경험의 실체를 파악함으로써 실무적응 경험의 변화과정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근거이론방법론을 이용하여 혈액투석실 간호사의 실무적응 경험 과정을 설명하는 실체이론을 개발하여 특수한 혈액투석실 업무에 성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혈액투석실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실무교육 및 중재 프로그램 개발 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있다. 연구문제는 '혈액투석실 간호사는 어떤 실무를 경험하며, 어떻게 적응해 나가는가? 이다.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Strauss와 Corbin (1998)의 근거이론적 연구방법을 토대로 의미와 경험의 구조가 완성될 때까지 이론적 표집, 심층 면담을 통한 자료수집과 혈액투석실 실무적응 경험에 대한 자료 분석을 반복하여 이들의 실무적응 과정에 대한 경험의 실체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2. 연구자 준비

연구참여자의 경험에 대한 진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의미를 도출하기 위한 연구자의 준비로 연구자 중 1인은 다수의 질적연구를 이끈 경험이 있으며, 질적연구학회에 여러 차례 참석하여 질적연구 방법을 습득하였고 그 외 연구자는 학위 과정 중 질적연구방법론을 이수하여 질적연구에 대한 학습을 하고 실제 연구를 통하여 연구자로서의 준비과정을 가졌다.

3. 자료 수집

1) 자료수집 기간 및 절차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11년 12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자료가 포화상태가 될 때까지 심층면담을 통해 이루어졌다. 면담은 참여자가 원하는 날짜와 시간을 미리 정하여 만났으며, 주로 참여자가 근무를 마친 후 조용한 휴게실에서 이루어졌다. 면담을

시작할 때는 일상적인 생활의 최근 근황이나 기분 등을 질문하여 보다 친근하고 편안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대화를 시작하고 이후 연구 질문으로 옮겨갔다. 연구의 주요 질문은 '혈액투석실에 근무하면서 경험한 것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이며, 1회 면담 시 소요된 시간은 평균 1시간 정도였고 참여자 1명당 면담 횟수는 1~3회 정도이었다. 면담 내용은 참여자의 동의를 구한 후 녹음기로 녹취하였고 면담이 끝난 후 여러 차례 반복 청취하면서 참여자의 언어로 기록하였으며, 참여자의 감정, 표정, 몸동작 등에 대해서도 기록하여 자료 분석 시 활용하였다.

인터뷰 분석 과정에서 내용이 불충분한 부분의 보충과 도출된 범주의 정련화를 위해 추가 면담을 시행하였다.

2) 연구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는 P시의 두 개 종합병원 혈액투석실에 근무하는 간호사 중 혈액투석실 경력이 1년 이상 2년 이하인 총 10명의 간호사이다. 참여자의 연령은 20대 6명과 30대 4명 이었으며, 총 임상 경력은 5년 미만 6명, 5년 이상 10년 미만 4명 이었다. 혈액투석실로 부서 배치를 받기 전 근무부서는 중환자실 3명, 내과 병동 2명, 외과 병동 1명, 타부서 경력 없이 신규로 혈액투석실에 입사한 간호사 4명이었으며,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자발적으로 참여를 결정한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3) 연구참여자의 윤리적 고려

연구 수행에 앞서 P대학교 병원 연구윤리심사위원회의 심의면제 심사를 거쳐 연구 허락을 받았다. 연구자는 연구참여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연구의 목적과 연구 방향에 대한 설명을 하여 자발적인 참여 동의를 받은 후 면담을 실시하였다. 참여자들에게 연구 과정에서 인터뷰 내용이 녹음된다는 것과 녹음된 자료는 익명으로 사용되며 연구자료 만으로 이용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연구가 종료된 후 모든 자료는 파기할 것을 약속하였다. 또한 면담 도중 언제라도 연구 참여를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설명한 후 서면화 된 동의서를 받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4.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자료 수집과 동시에 이루어졌으며, 필사된 면담내용은 Strauss와 Corbin (1998)이 제시한 근거이론방법에서 적용되는 분석방법에 의거하여 분석되었다. 먼저 연구자는 필사된 면담내용을 여러 번 반복하여 읽으며 전체적인 의미를 파악한 후 한 문장씩 검토하여 개념화하였고 개발된 개념들을 범주화하는 개방코딩을 하였다. 개방코딩을 통해 추출된 범주들 간의 관계는 인과적 조건, 중심현상, 상황적 맥락, 중재적

상황, 상호작용전략, 결과의 구조를 통해 분석하였고, 각 범주들을 연결하고자 축코딩을 하여 패러다임 모형을 확인하였다. 이후 모든 범주와 연결되어 있는 핵심범주를 찾아내고 핵심범주를 축으로 범주 간의 관계를 분석하며 상황적 변화에서 어떤 변화를 나타내는지에 대해 과정분석을 하였다.

5.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

본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립하기 위하여 질적연구를 수행하는 교수 1인과 자료를 지속적으로 비교하고 분석하며 면담을 하였고, 추출된 결과에 대해 참여자와 의견을 나누며 확인하는 절차를 가졌다.

연구 결과

1. 자료의 범주화와 구조분석

혈액투석실 간호사의 실무적용 과정을 지속적인 근거자료 비교분석방법으로 분석한 결과 43개의 개념에서 18개의 하위범주와 10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Table 1). 축코딩을 통하여 10개의 범주를 재조합한 패러다임 모형에서 중심현상은 '소진감', 핵심범주는 '인정받고 성장하기'로 나타났다(Figure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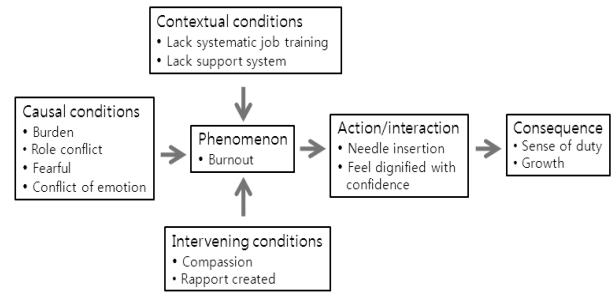


Figure 1. Paradigm model.

1) 인과적 조건(Causal condition)

본 연구에서 근거자료의 분석결과 '부담감', '역할 갈등', '두려움', '감정충돌'이 중심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범주로 밝혀졌다.

부담감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부서 배치 통보를 받은 후 특수한 혈액투석실 업무에 대한 적응보다도 만성질환으로 오랜 시간 투병을 해온 투석환자들과의 상호관계 형성에 대한 걱정을 부담감으로 느끼며, 부서 배치 결정에 순응해야 하는 지에 대한 고민을 하

Table 1. Categorization of Concept

Concepts	Subcategories	Categori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Think that hemodialysis patients are sensitive and have distinctive characteristics Regard it as being difficult to form good fellowship with patien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Negative attitudes toward dialysis patients Concern for the formation of a mutual relationship 	Burden
<ul style="list-style-type: none"> Feel it is difficult to identify functions of machine Machine operation differs depending on patient status Feel incompetent as they could not help in case of emergency Feel scared and afraid that patients may be die Patient status can become worse in a mo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Not familiar with machine Unskilled in coping with situations 	Fearf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Behavior of patients difficult to control or understand Patients declining care of new nurs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Not becoming friendly with patients 	Conflict of emo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Nurses have to cope with all situations first Embarrassed not to know what to do Lack education materials for nurs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Require education materials according to stage of adaptation 	Lack systematic job train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Situations are different from other departments Feel that management guidelines for each patient case are required 	<ul style="list-style-type: none"> Require practice guidelines for coping with actual situ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More patients shared warmth Examine and understand position of patien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Understand and becoming friendly 	Rapport created
<ul style="list-style-type: none"> Experience success in needle insertion Patient education and Vascular access are made possi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Successfully conduct vascular access and needle insertion 	Growth
<ul style="list-style-type: none"> Machine operation becomes possible to start and finish hemodialysis process alone Feel a sense of satisfaction and pride for recognition of career in special depart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Feel dignified with confidence 	

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환자실이나 병동 경력이 있는 간호사들은 입원한 혈액투석 환자를 직접 간호한 경험에 의해 환자들의 성향이 까다로워서 유대감 형성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이며, 임상 경험이 없는 신규간호사들도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많은 부서라는 부정적인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투석에 대해선 잘 몰랐지만 그 투석환자들에 대한 선입견은 있었어요. 성격이 이상하다, 고집이 세다 하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들어서 로테이션 싫다고 말씀드렸는데 어쩔 수 없이 오게 됐어요(참여자 1). 부서 이동 통보 받았을 때 투석실만 안 가게 해달라고 했어요(웃음). 전 내과 병동에 있었으니까 병동에 입원한 투석환자들 많이 겪어 봤잖아요. 아이고. 그 성격. 정말 웬만해선 맞추기 힘들었고 많이 울기도 했거든요(참여자 3).”

역할 갈등

참여자들은 혈액투석실에서 근무를 시작한 후 대략 6개월에서 1년여 동안 직접적인 간호수행과는 동떨어진 간호조무사 또는 보조원 역할의 업무들을 매일 반복했고, 기계 또는 투석과 관련된 소모품을 다루는 기술을 습득하는데 중점을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한 과정 중에 간호사로서의 존재감이나 역할에 대

한 갈등으로 타 부서로의 재이동을 원하거나 사직을 고려하는 고민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상 투석에 필요한 소모품을 정리해야 하니까.. 박스 나르고. 투석액 나르고. 그러니까 병동에 있는 같은 년차 친구들 만나도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6개월 정도는 고비가 몇 번 있었던 것 같아요(참여자 10). 매일 똑같은 일을 하니까 지치죠. ‘언제까지 이일을 해야 하지’하면서 사직서를 적기도 하고.. 그러다가 ‘좀 지나면 낫겠지’하면서 지내고.. 또 몇 달을 지내고.. 이렇게 반복하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참여자 2).”

두려움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투석 중에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돌발적인 상황에 대해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다. 혈액투석 중에는 혈압이나 의식상태가 순식간에 떨어지는 상황이 종종 발생할 수 있는데, 간호사들이 그 순간을 놓치거나 대응을 적절히 하지 못할 경우 환자가 사망할 수도 있는 위험한 순간을 경험하게 된다. 따라서 혈액투석실 신입간호사들이 그러한 상황을 경험하게 되면 기계를 익숙하게 다루지 못하고 환자 상태에 따라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해 무능력하게 느끼기도 하며, 자

신의 근무 중 그러한 상황이 발생할까봐 늘 긴장하게 되고 두렵다고 하였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무능력하고 바보가 된 기분이었어요. 제가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환자 상태가 안 좋는데.. 해줄 수 있는 게 없고, 대처하는데 자신이 없으니까 응급상황은 여전히 두려운 거죠(참여자 2). 전 응급을 한 번 겪고 나서 좀 강박적인가 생각이 들 정도로 바이탈을 정말 자주 챙기게 됐어요. 중환자실은 바로 처치할 수 있는 공간이나 기자재가 있는데.. 투석실은 상황이 좀 그렇지 않죠. 침대하고 기계 사이 공간도 협소하고 바로 옆 침대에 있는 환자가 충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중환자실로 옮기게 되면 그 와중에 사망하지 않을까 두렵고 무서워요. 그래서 가급적 응급상황은 안 만들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랄까 그런 게 생겼어요(참여자 3).”

감정충돌

혈액투석 환자들은 혈압을 재거나 약을 투여하는 등의 기본적인 간호사 업무를 신입간호사들이 수행한다는 이유만으로 노골적인 불신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새로운 실무에 적응해야 하는 어려움에 놓인 신입간호사들이 특별한 이유 없이 화를 내거나 욕을 하며 인격적인 모욕을 주는 환자와 맞닥뜨려 졌을 경우에는 환자들과 감정적으로 충돌하게 되어 심리적으로 상처를 받게 되는 또 다른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참여자들은 감정충돌로 상호관계가 좋지 않은 환자라 하더라도 일주일에 2~3번씩 반복적으로 만나야 하는 업무 특성 때문에 억지로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환자와 긍정적인 상호관계 맺기를 재시도하거나 아예 부딪히지 않으려고 계속 회피하는 등의 양상을 나타냈다.

“이해가 안 되는 환자 캐릭터나 말도 안 되게 고집부리는 그런 상황들이.. ‘이해 해야 된다’ 생각하면서도 ‘한계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처음 몇 달은 일 때문에 힘들고 그 뒤에는 환자 들하고 부딪히는게 정말 힘드니까.. 아.. 정말 이런 거 못 참아 내니까 나 투석실하고 안맞는 갑다. 진짜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참여자 9). 바늘 찌를 때 조금이라도 자기 맘에 안 들면 ‘야! 아파 빼! 씨발’ 하면서 바로 욕이 튀어 나오는 거예요. ‘잘하는거 뵈꼬와!’ 이렇게 인격적으로 모독하는거 있잖아요. 그 환자가 오는 날은 출근하기도 싫고 근무하는 동안도 심장이 두근거리고 힘들었어요(참여자 4). 신규 때 어떤 환자분이 떨떨하게 생겨서 일도 제대로 못한다고.. 인격 무시하는 말을 하면서 옆에 다른 환자하고 같이 막 큰소리치고 욕 비슷한 말을 내뱉는

거예요. 신규 때라 마음에 상처가 많이 되서 그날 많이 울었는데.. 그 환자한테 일 년 정도 안 가게 되었던 것 같아요. 또 무슨 욕을 듣게 될까봐 두렵고, 내가 그런 말을 들을 정도였다 생각이 들면서 그때 일이 떠오르고.. 그래서 의식적으로 좀 피했던 것 같아요(참여자 2). 밖에서 분명히 기분 나빠 온 걸로 보이는데 저희에게 푸시는 거예요. 감정 조절 못하고 폭력적으로 뒤편 던지고.. 투석 중에 기계 돌아가는데 바늘 빨려고 하고.. 그런걸 보면 저도 참 힘들어요. 최대한 상처 안 받으려고 노력할 뿐이에요(참여자 10).”

2) 중심현상(Phenomenon)

참여자들은 혈액투석실로 배치 통보를 받은 후 부터 실제 업무에 적용해 가는 과정에서 ‘부담감’, ‘역할 갈등’, ‘두려움’, ‘감정충돌’을 경험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경험과 관련된 중심현상은 ‘소진감’이었다. 소진감의 원인은 생소한 업무에 익숙해지지 않음과 기술적으로 미숙함, 반복적으로 대면하는 환자들과의 유대감 형성의 어려움과 갈등에서 초래되는 신체적, 심리적인 불균형이었다.

3) 맥락적 조건(Contextual condition)

본 연구에서 소진감이라는 중심현상을 가져오는 맥락적 조건으로 ‘체계적인 실무교육의 부재’, ‘지지체계의 부족’이 도출되었다.

체계적인 실무교육의 부재

참여자들이 실무 적용 과정 동안 받게 되는 교육에서 투석 중 발생하는 돌발 상황들에 대한 대처 교육은 경력자의 행위를 관찰하거나 구두상으로 설명을 듣고 답습하는 비체계적인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따라서 다양한 상황 대처의 경험을 하지 못한 간호사들은 6개월~1년 정도의 적응기간 이후에도 돌발 상황에 대해 독립적으로 능숙하게 대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로 인해 업무에 대한 긴장감은 더욱 고조 되어 중심현상인 ‘소진감’을 강화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언제든 순식간에 이머전시 상황이 될 수 있어서 저는 다른 거 보다는 먼저 그런 상황에 대처하는 교육이 켈 먼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교육자료는 없어요. 그냥 선생님들이 하는 거 옆에서 지켜보고 배우고 하는데.. 사실 간호사들이 제일 먼저 안 좋은 상황을 캐치하니까.. 그런 부분 교육이 제일 중요한 거 같아요(참여자 6). 실제 환자들에게 일어나는 일들.. 케이스 스터디나 실제 상황 매뉴얼이 있으면 정말 좋을 거 같아요(참여자 3). 투석실 간호사들이 알아야 하는 것이 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으면.. 어떤 선생님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 또

어떤 선생님들은 저렇게 해야 한다. 이야기하시는데 거의 비발로 전달되니까.. 좀 문서화 되어 있었으면 했어요(참여자 2).”

지지체계의 부족

참여자들은 실무적인 면과 환자와의 상호관계 형성 면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공유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지체계가 한계적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있었다. 따라서 공감대가 형성된 투석실 동료들과 소통하며 위로받고 감정을 이완시키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어려워 중심현상인 ‘소진감’을 감소시키는 것에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

“저 같은 경우는 선배님한테 이리광 부리면서 말씀드려요. ‘저 환자분 또 저러신다’ 라고 ‘아 답답하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그래 말이야’ 그러시면서 맞장구 쳐주시고 공감해 주시니까 거기에서 저도 풀리고.. 힘든 일이 생기면 투석실 동기들하고 푸는데 답은 없어요. 그냥 하소연이죠 뭐.. 다른 부서 동기들한테는 얘기 해봤자 투석실 경험이 없으면 절대 이해 못하니까(참여자 5). 윗분들이 우리 힘든 걸 들어 주는 어떤 창구가 있으면 좋겠어요. 문제를 다 해결해 주지 못해도 그냥 우리 힘든 걸 얘기할 수 있는..(참여자 1).”

4) 중재적 조건(Intervening condition)

본 연구에서 중심현상으로 나타난 ‘소진감’을 해결하기 위해 상호작용 전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측은지심(惻隱之心)’과 ‘Rapport 형성’으로 나타났다.

측은지심(惻隱之心)

다양한 연령대의 혈액투석 환자들을 간호하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측은함과 마음쓰임의 표현은 업무적, 정서적 ‘소진감’을 극복하는데 동기부여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들이 기계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모습이 갈수록 너무 불쌍해 보이고.. 투석 끝나면 침대에서 잘 일어나지도 못하고 축 처져서 나가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짠해 지는 걸 느껴요(참여자 7). 젊은 환자들도 점점 웃음을 잃어가고.. 삶이 힘들어지니까.. 안타까워요. 실제로 우울증이 있으신 분들이 많은데.. 환자들 정서를 치유해 줄 수 있는 그런 간호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참여자 9).”

Rapport 형성

참여자들은 혈액투석실의 특성상 반복적으로 접촉하게 되는 환자와 유대감을 형성하면서 ‘소진감’을 회복시키고자 하였다. 이

것은 여유로운 마음을 갖고 먼저 이해하고 친해지려는 노력을 통해 환자와의 상호관계에 대한 새로운 시작과 변화를 갖고자하는 것이었다.

“1년 정도를 쭉 보니까.. ‘또 저러신다’ 그러면서 그냥 넘기게 되요. 라포도 형성되는거 같고.. 환자하고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솔직히 그날은 저도 감정이 안 좋은데.. 이제는 그냥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다음에 보면 먼저 인사해요. 나쁜 말을 들어도 웃으면서 왜그러시냐고 하고.. 좀 능글맞게 대처하는 것 같아요. 먼저 말 걸고.. 스스로 마음이 좀 유연해지는 것 같아요(참여자 8).”

5) 작용/상호작용 전략(Action/interaction)

중심현상인 ‘소진감’을 조절하기 위해 취해지는 참여자들의 행동전략은 ‘Needle insertion 시작’, ‘자신감으로 당당해짐’으로 나타났다.

Needle insertion 시작

참여자들은 약간의 개인차가 있었지만 대부분 6개월에서 1년 여의 적응기간 이후에 동정맥루(A-V shunt)에 바늘 꽂기(needle insertion)를 시작하였다. 이 시기에 환자와의 관계는 혈관 사정 과 함께 친밀해 지면서 더 돈독해지고 환자들이 투석간호사로서 인정하고 신뢰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똑같은 업무가 지루하게 반복되다가 니들링을 시작하니까 같은 일도 달라 보이고.. 다시 긴장감도 생기고 활력이 생기는 것 같았어요(참여자 3). 일단 혈액투석실 간호사는 니들링 스킬이 좋아야 되잖아요. 환자들은 바늘 한 번 만에 잘 놓는 간호사를 좋아 할 수 밖에 없고.. 바늘이 16개이지인데.. 그 굵은 바늘에서너 번 찔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업무가 익숙해지고, 환자하고 라포도 생겼을 때 니들링하게 되니까.. 니들링 시작 한다는 거는 어느 정도 이제 투석실 간호사로 내가 인정 받았다는 뜻이죠(참여자 8).”

자신감으로 당당해짐

참여자들은 혈액투석 간호에서 중요한 체중관리, 약물관리, 식이관리 등과 같은 부분에 대해 지식적으로 정립되어 일대일 환자 교육과 관리가 가능해지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계적으로 능숙하게 투석의 시작과 마침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스스로 혈액투석간호사로서 당당해지는 자세를 갖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6개월 정도 지날 때 까지도 환자들이 제가 옆에 있어도 저한테 안 물어보고 년차썸을 불렀거든요. 검사 결과나 수분을 얼마나 빼야 되는지.. 약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그런 거 물어보시는데.. 사실 저도 잘 모르는 부분이 있었지만 좀 섭섭할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환자들이 자연스럽게 저한테 물어보고 저도 혼자 그런 부분을 해결하려고 해요(참여자 5). 환자들 캐릭터 같은 특수성은 빨리 파악하려고 하구요. 기계속도나 맞추는 몸무게가 다 다른데.. 될 수 있으면 외우려고 노력해요. 그래야 환자들도 좋아하고.. 저도 자신 있게 대할 수 있으니까.. (참여자 4).”

6) 결과(Consequence)

본 연구에서는 ‘사명감’, ‘성장해가는 모습’이 상호작용에 의해 초래된 결과로 도출되었다. 참여자들은 생소하고 특수한 업무환경을 가진 혈액투석실의 실무와 환자들과의 관계형성에 신체적, 정서적 소진을 경험하고, 그 상황을 환자에 대한 이해로 극복하며, 실무에서 생각과 태도가 변화되는 적응 과정을 나타내었다.

사명감

참여자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환자들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마음과 의료인의 책임감을 가지게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환자들이 간호하는데 취해야하는 생각과 태도의 방향을 바꾸고자 노력하였다.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니까 환자들이 좀 더 건강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한테 환자들 생명이 달려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매사에 좀 신중하게 되는 것 같고.. 환자 컨디션도 많이 신경 쓰게 됐어요. 한 번씩 신규 환자들이 적응 못해서 투석 빠지고 안 오는 경우 있거든요. 그럼 통화 될 때까지 전화해서 안부 확인하고, 오라고 해서 퇴근시간 넘겨도 투석 돌려주고.. 그래야 저도 안심이 되는 거예요(참여자 8).”

성장해가는 모습

참여자들의 대부분은 혈액투석실 업무를 시작하고 1년 후 시기에 혈관사정 및 동정맥루 천자, 기계적 조작, 환자 사정과 교육 등의 혈액투석실 간호사의 주된 역할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성장된 모습을 나타내게 되었고 자기효능감이 높아져 실무에 임하는 태도가 적극적으로 변화하였다.

“완전히 투석실 간호사라고 말하기 어렵고 저는 그냥 준비요원 같은 역할이었는데 어느덧 일 년이 지나 니들링이 시작되고 담당환자가 생기면서 막 일이 재밌어 지더라고요. 환자들도 저

를 의지하는 모습이 느껴 지구요. 경력 쌤들이 이야기했던 투석실만의 매력이 이런 거구나 하고 느꼈던 것 같아요(참여자 2). 한마디로 살맛 나더라고요(웃음). 환자들이 저를 보는 시선도 틀려지고.. 니들이 한 번에 잘 들어가면 ‘하나도 안아프게 놓네’ 하는 칭찬도 들으니까.. 더 잘하려고 공부도 많이 하고 학회 참석도 제일 먼저 신청해요(참여자 7).”

2. 핵심범주: 인정받고 성장하기

본 연구의 참여자들이 혈액투석실의 실무에 적응하면서 느낀 ‘소진감’은 ‘부담감’, ‘역할 갈등’, ‘두려움’, ‘감정충돌’의 인과적 조건에 의해 나타났으며, 중재적 조건인 ‘측은지심(惻隱之心)’, ‘Rapport 형성’의 영향을 받으면서 ‘Needle insertion 시작’, ‘자신감으로 당당해짐’의 상호작용을 통해 변화해 나갔다. 이 과정에서 핵심범주는 ‘인정받고 성장하기’로 나타났다.

소진감과 관련된 시간경과에 따른 변화는 3단계로 분류하여 ‘갈등기’, ‘수용기’, ‘성장기’로 구분하였다(Figure 2).



Figure 2. Conditional matrix.

참여자들은 혈액투석실로 배정을 통보 받는 순간부터 업무의 특수성과 만성질환 환자들과의 상호관계 형성에 대한 부담감으로 부서 배정을 수용하는데 한동안 고민했던 것을 알 수 있었다. 업무를 시작한 후에도 혈액투석간호사 역할에 대한 갈등과 상황대치의 미숙함으로 인한 두려움, 환자와의 유대적 관계 미형성으로 충돌을 경험하면서 어려움은 계속되었고, 부서 이동 또는 사직에 대한 유혹을 참기 힘들었다고 한다. 혈액투석실의 신입간호사는 몇 개월 동안 투석기계 및 정수시스템의 원리, 기계작동법 등 특수 장비들에 대해 지식적으로 배우는 시간 외에도 환자들이 불편함 없이 치료를 받기위해 필요한 세부적인 소모품들을 정리하고 준비하며 대부분의 근무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혈관사정 및 환자관리와 같은 직접적인 간호에 관여하지 못하는 신입간호사들은 임상경력이 있는 간호사라 하더라도 환자들에게 신규간호사로 각인되어 무시당하거나 신뢰를 쌓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혈액투석은 매주 2~3번씩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신장 대체요법이다. 참여자들은 다양한 연령대의 환자들이 어려운 환경속에서 투석생활을 이어 나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자연스럽게 측

은함과 연민의 마음이 생긴다고 하였다. 따라서 감정충돌로 인해 정서적으로 힘들게 하는 환자에게도 먼저 마음을 열고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게 되어 수용적 자세를 취하게 된다고 하였다. 또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 Rapport 형성이 잘 된 환자들도 생겨나면서 환자와 간호사의 상호관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되고 실무에 임하는 태도에도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였다.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1년여의 적응기간이 지나면서 '성장기'의 단계로 진행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환자와의 유대적인 관계가 깊어져 그들의 생명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는 사명감을 가지게 되었고, 기계 조작에 큰 어려움이 없게 되어 일대일 투석관리와 환자관리가 가능해졌다. 이 시기에 간호사들은 자연스럽게 환자들의 동정맥루 혈관 사정과 needle insertion을 시작하게 되었고, 환자들도 이미 형성된 친밀감으로 인해 needle insertion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임으로서 또 다른 신뢰관계를 형성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로써 참여자들은 혈액투석 간호사의 면모를 갖추었다는 당당함과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고 업무에 대한 만족과 태도에 활력을 가지게 됨으로서 계속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논 의

본 연구에서 혈액투석실 간호사들의 실무적응 경험과정의 핵심범주는 '인정받고 성장하기' 이었고, 시간경과에 따른 단계는 '갈등기', '수용기', '성장기'로 구분되었다.

만성신부전증은 독특한 만성질환으로서 유지 대체요법 중 하나인 혈액투석은 식이와 수분제한, 혈관 사정, 생활형태의 변화, 의료인과의 밀착된 상호관계를 필요로 하는 복잡한 치료계획을 포함하고 있다(Moulton, 2008). 따라서 환자들은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 불안과 같은 사회심리적 부적응 상태를 보이게 되며, 쉽게 감정 변화를 겪게 된다(Abolfazl, Fazlollah, & Mahmoud, 2008). 이러한 이유로 혈액투석환자들은 화를 잘 내고 예민한 환자라는 인식이 보편적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 참여자들도 혈액투석환자의 성향에 대해 미리 갖게 되는 부정적인 선입견으로 업무 시작 전부터 환자와의 상호관계 형성에 큰 부담을 느꼈으며, 부서 배치 결정에 긍정적이지 않은 태도를 나타내었다.

업무를 시작한 참여자들은 대부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간호사 역할의 모호함을 느끼게 하는 단순 업무와 반복되는 실무형태에 적응해야 하는 것에서 지쳐감을 호소하였으며, 기계를 다루는 기술이 미흡하여 돌발적인 상황대처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고, 환자와의 미성숙한 상호관계 형성으로 감정 충돌을 경험

하며, 신체적, 정서적으로 소진되는 현상을 나타내게 되었다. 혈액투석실의 실무는 임상경험이 있는 간호사라 하더라도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생소한 일이며, 투석기계를 이용한 치료를 중심으로 간호가 이루어지고 환자들이 4~5시간 투석을 받는 동안 불편하지 않게 돌보며 무사히 투석을 마칠 수 있게 하는 것이 간호의 목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혈액투석실의 실무는 그러한 간호 목표에 맞게 기계, 의료소모품, 환자 필요물품 등을 준비하고 제공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러한 실무가 일반 병동 간호사의 생리적 통합성 환자 간호에 중점을 둔 것과는 차이가 있으며, 혈액투석실 간호사들이 실무 적응 초기에 역할 모호로 인해 더 많은 갈등을 겪게 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다(Na, 2005).

참여자들은 혈액투석실의 실무에 완전히 적응하기도 전에 투석 중인 환자들의 생명이 위협해지는 응급상황 또는 신속히 기계적 조작이 필요한 돌발적 상황을 빈번히 경험하면서 기계를 능숙하게 다루지 못하고 대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간호사로서 무능력함을 느끼고, 자신의 근무시간에 일어난 응급상황으로 환자가 위중해 지거나 사망에 이르는 상황이 될까봐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Joung (2003)의 병원근무 간호사의 경험에서 간호사들은 자신의 지식이나 기술이 적절하게 환자치료에 적용되었을 때 간호사로서 소명의식을 느끼고, 상황 판단 능력 부족이 간호사의 임상업무를 어렵게 한다는 보고(Hwang et al., 2002; Suh et al., 2002)와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겠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혈액투석간호의 차별화된 교육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다양한 교육자료나 실무 교육프로그램이 부족하고 적절하지 못한 것에 대해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이것은 신규간호사 뿐만 아니라 타부서의 임상경험이 있는 간호사라 하더라도 혈액투석에 대한 지식의 습득과 투석 중 상황에 대처하는 기술은 생소한 문제이기 때문에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혈액투석실과 같이 독특한 직무환경과 만성질환의 환자를 간호해야 하는 교육의 계획에는 간호사의 임상경력 및 성향 파악과 업무 분석에 따른 목표가 필요하고, 그에 따른 전략으로 시각적 자료의 매뉴얼이나 Handbook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Valerie, Alice, & Marilyn, 2007). 일반적으로 간호사들은 임상실무를 배우는 시작단계에서부터 주로 직접적인 신체간호에 치중하여 교육을 받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데, 혈액투석 간호사들은 신질환의 심리적 영향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고(Muringai, Noble, McGowan, & Chamney, 2008), 그것이 환자의 육체적 변화 사정에도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이러한 부분의 구체화된 실무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라

사료된다.

참여자들은 혈액투석실 실무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서 환자와 상호관계를 맺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다양한 접촉에 의해 '측은지심(惻隱之心)'과 'Rapport 형성'이라는 긍정적 측면의 중재 과정을 경험한다고 하였다. 시간이 지나면서 환자와 감정을 교류하게 되고 인격적 만남의 경험이 쌓여 서로 이해하게 되고 긍정적 관계를 유지하게 되는 것은 Suh 등(2002)의 연구에서 '대상자 수용하기'를 통해 간호사와 환자의 상호관계가 긍정적으로 발전되고 적절한 간호가 이루어진다고 한 것과 같은 맥락이라 하겠다. 또한 동일한 환자와 반복적으로 만나고 간호하면서 환경과 사회심리적인 상태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도 환자를 이해하며 건강증진에 노력하게 되는 간호사 역할로 자리 잡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몇몇 참여자들은 처음 환자들에게 가졌던 부정적인 선입견과 함께 위축된 긴장감으로 환자들을 대하게 되고 환자들 또한 새로 투입된 간호사들에게 쉽게 마음을 열지 않으면서 심리적 갈등을 경험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참여자들은 일정 기간 동안 힘든 환자를 회피하며 어려운 환자와의 대인관계에서 거리두기의 심적 기제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Kim (2002)의 연구 결과와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는데, 환자와의 일정한 거리유지를 통해 감정적인 평행선을 유지하고 실무 적용에서 감정에 치우치지 않으려는 간호사의 극복 노력이라고 볼 수 있겠다.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약 일 년 정도의 기간이 지난 후 기계와 장비를 다루는 기술에 능숙해지고, 업무 흐름과 환자들 개개인의 특성을 파악하여 건설적인 상호관계를 이루게 되었다. 이 시기에 동정맥루(A-V shunt)의 혈관사정과 바늘 꽂기(needle insertion), 일대일 환자 교육 등의 관리자 역할을 시작하게 되었으며, 자신감 있고 당당한 혈액투석실 간호사로서 환자들에게 인정받고 있음을 느꼈다고 하였다. 참여자들은 각기 다른 혈관상태의 환자들에게 성공적인 바늘 꽂기(needle insertion)를 수행한 후 성취감을 얻고 격려를 받았으며, 프리셉터나 선배 간호사의 모습을 보며 반복적으로 익힌 대리 경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실무에 적용되어진 자신을 보게 되면서 성공적인 수행이 가능하다는 자기효능감의 신념을 가지게 됨을 알 수 있었다. 자기효능감의 근원에는 성공적인 경험, 사회적 모델이 제공하는 대리 경험, 언어적 격려가 포함되며(Valerie et al., 2007), 참여자들은 이러한 경험을 통해 느끼는 자기효능감으로 인해 스스로 성숙되고 성장해 감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나타난 혈액투석실 간호사의 '인정받고 성장하기'의 실무적용 과정이란 '부담감', '역할 갈등', '두려움', '감정충돌'의 인과적 조건에 의해 나타난 '소진감'이라는 중심현상이 정서적인 면에서는 환자들을 향해 생기는 연민의 정과 라

포형성으로 극복되며, 간호기술적인 면으로는 바늘 꽂기(needle insertion)의 성공적인 수행 및 혈관사정이 시작되고, 능숙한 기계조작이 가능해 지면서 혈액투석 간호사로 인정받고 성장해 가게 된다는 결말을 얻게 되었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근거이론적 접근법을 이용하여 혈액투석실 간호사의 실무적용 경험과정을 확인하고 이들이 특수한 실무에 신체적, 정서적으로 잘 적응할 수 있는 여건을 파악하여 간호 인적 자원 관리의 기준을 마련하고 실무교육 및 지지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두 곳의 혈액투석실에서 근무를 시작한지 2년 이하의 간호사 10명을 대상으로 실무적용 과정 동안의 경험을 심층 면담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자료 수집과 분석은 동시에 이루어졌으며, 지속적인 비교분석, 근거자료의 범주화, 패러다임 모형과 과정분석을 통해 핵심범주가 도출되었다. 그 결과 43개의 개념에서 18개의 하위범주와 10개의 범주가 도출되었으며, 혈액투석실 간호사의 실무적용 과정은 '소진감'이라는 중심현상을 통해 '인정받고 성장하기'라는 핵심범주로 나타났다. 이 과정은 '갈등기', '수용기', '성장기'의 3단계로 구분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혈액투석실 간호사의 실무적용 과정에 대해 전반적으로 이해하며, 혈액투석실 인적 자원의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할 것이라 사료된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 첫째, 혈액투석실 간호사의 소진감에 영향을 미치는 환자와의 상호관계형성 과정에 대한 질적기반 연구가 필요하다.
- 둘째, 경력 기간에 따른 단계별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 셋째, 특수한 실무의 적용과정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하는 혈액투석실 간호사들의 고충을 중재하는 지지기반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

REFERENCES

- Abolfazl, R., Fazlollah, A., & Mahmoud, G. (2008). The effects of continuous care model on depression, anxiety, and stress in patients on hemodialysis. *Nephrology Nursing Journal*, 35(1), 39-43.
- Chun, I. S. (2005). *A study for the development of nursing competency scale and in-service education needs for hemodialysis nurses according to their career stage*.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Chun, I. S. (2010). *"Nursing hemodialysis patients" the development of web-based education program*.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Hwang, S. Y., Lee, E. J., Na, D. M., Lee, G. S., Sun, G. S., & Lee, C. S. (2002). The clinical experience of newly qualified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8, 261-271.
- Joung, K. H. (2003). A phenomenological perspective and discovery of meaning in nurse's experience in clinic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9, 599-613.
- Korean Society of Nephrology. (2011). *2010 Insan memorial dialysis registry*. Retrieved February 20, 2012, from <http://www.ksn.or.kr/journal/2011/index.html>
- Korean Nephrology Nurses' Association. (2011). *2010 Register status*. Retrieved February 20, 2012, from http://www.knna.or.kr/knna/knna_member/regist_01.php
- Kimmel, P. (2001). Psychosocial factors in dialysis patients. *Kidney International*, 59, 1599-1613. <http://dx.doi.org/10.1046/j.1523-1755.2001.0590041599.x>
- Kim, D. H. (2002). Understanding experience of nurses dealing with difficult patients. *Journal of Korean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ing*, 11(1), 63-77.
- Kim, S. J. (2005). *The phenomenological study on an ethical dilemma of hemodialysis nurse*.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Moulton, A. (2008). Chronic kidney disease: The diagnosis of a "unique" chronic disease. *CANNT Journal*, 18(1), 34-38.
- Muringai, T., Noble, H., McGowan, A., & Chamney, M. (2008). Dialysis access and the impact on body image: Role of the nephrology nurse. *British Journal of Nursing*, 17, 362-366.
- Na, M. H. (2005). *Role conflict and job satisfaction in hemodialysis nurs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Park, B. H. (2005). *A study on the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types of nursing organizational culture, organizational performance in hemodialysis room*.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Park, H. S., Kim, K. N., Kang, E. H., Lee, J. M., & Park, S. M. (2011). Lived adaptation experience of new ICU nurses who are working in a newly established university hospital. *Journal of Korean Academy Fundamental Nursing*, 18, 226-236.
- Rheu, H. R., & Kim, Y. R. (2005). Social supports and quality of life of hemodialysis patients. *The Korean Public Health Association*, 31(2), 184-189.
- Strauss, A., & Corbin, J. (1998). *Basic of qualitative research: Techniques and procedures for developing grounded theory* (2nd ed.). Thousand Oaks, CA: Sage.
- Suh, M. J., Son, H. M., Kang, H. S., Kwon, S. B., Kim, J. H., Park, Y. S., et al. (2002). The nurses' experience of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Korean Academy Adult Nursing*, 14, 564-572.
- Valerie, L., Alice, G., & Marilyn, J. (2007). The design of a hemodialysis nursing orientation program. *CANNT Journal*, 17(2), 44-47.